

초등교실서 다시 피어난 소록도 '할매천사들'

광주교대부설초 4학년 김정훈 교사·학생들 '마리안느와 마가렛' 헌신 10시간 계기수업 아이들 손편지 받은 재단 초청 11월3일 방문

오해와 편견이 빚어낸 애환의 섬, 소록도.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43년간 보살피온 푸른 눈의 두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머나 먼 이국에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든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두 사람의 헌신이 초등교실에서 다시 피어났다.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4학년 2반 김정훈 교사와 24명 아이들을 통해서다. 희생과 봉사로 깊은 울림을 전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주제로 지난 7월 김교사와 아이들은 10시간에 걸쳐 계기수업을 진행했다.

이미 노벨상 수상을 위한 서명운동 등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김 교사가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주제로 계기수업을 진행한 사연은 따로 있다. 바로 광주교대부설초 배움터지킴이 장석석 씨의 부탁 때문이었다. 장씨는 소록도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한 전직경찰로 어느날 김 교사에게 자신이 지켜본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아이들에게 배움을 통해 알리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를 새겨들은 김 교사는 정규 교과과정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즉시 실천에 옮겼다. 아이들은 그렇게 10시간의 수업을 마무리하며 방학을 하루 앞둔 지난 7월25일 그동안 자신들이 배우고 느꼈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에 대한 이야기들을 손편지와 그림, 시에 담아 소록도 재단으로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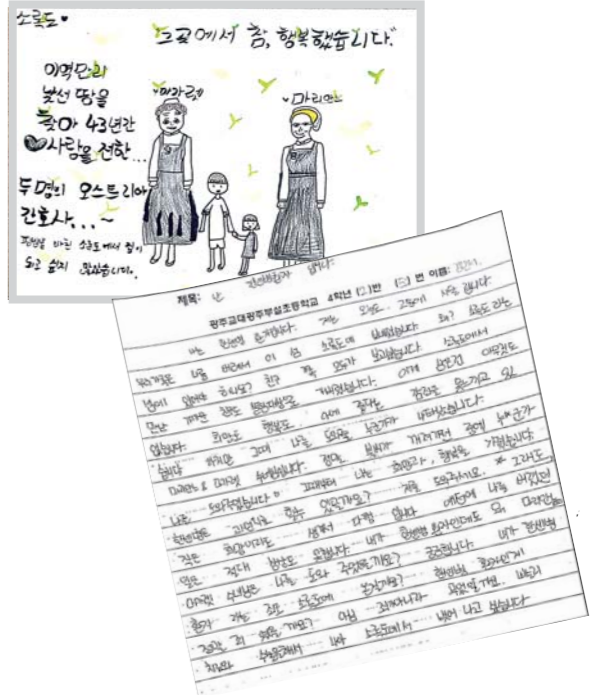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4학년 2반 학생들이 지난 8월 소록도에서 온 선물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학생들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재단의 초청을 받아 오는 11월3일 소록도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달쯤 후 여름방학을 마치고 다시 만난 김교사와 아이들에게 뜻밖의 선물도 도착해 있었다. 바로 재단측이 감사의 편지와 함께 두 수녀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우리 곁에 사랑이 머물던 시간'과 여러 기념물을 상자 가득 보내온 것이다.

재단측이 보낸 답장에는 아이들의 편지를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소록도도 선생님과 아이들을 초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교사는 재단측과 논의 끝에 오는 11월 3일 광주교대부설초 4학년 2반 학생 24명 전원을 함께 소록도를 직접 방문한다. 그동안 '마리안느와 마가렛' 관련 지원사업을 펼쳐온 고흥군청을 방문해 설명을 들은 후 소록도에서는 김연중 신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막, 중앙공원, 박물관 등을 관람할 예정이다. 김 교사는 "소록도의 애환이자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가 평생을 함께 한 한센병 환

자들과 직접 접촉은 어렵겠지만 탐방이 가능한 곳을 체험해볼 계획"이라며 "아이들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 그리고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헌신과 봉사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려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storyboard@hanmail.net



서상준 교수의 '우리말 바꾸기'

'간절기'와 '환절기' '임대'와 '임차'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다. '간절기'는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다. 굳이 말하면 근래에 새로이 쓰이는 말이다. 2000년 국립국어원 신조어 목록에 올라 있으니 신어치고는 그래도 제법 나이를 먹은 셈인데, 이런저런 논란이 있다. 일본식 표현을 잘못 옮겼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일본어에는 '환절기'라는 말이 없어서 계절이 바뀌는 때를 '절기의 사이(節氣の間)'나 '계절이 변하는 때'라고 표현하는데, '간절기'는 이것을 잘못 옮긴 것이므로 예전부터 써 오던 '환절기(換節期)'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간절기'가 자연스러운 조어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널리 쓰이는 말 중에는 부자연스럽거나 심지어 정반대의 뜻을 가진 말도 적잖이 있다. 사전에 있든 없든, 어법에 맞든 아니든, 대중들이 쓰는 것을 막을 방법은 결국 없다. 그래도, 잘못됐으니 바르게 쓰자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또 아니다.

◆ '임대'와 '임차'
'임대(賃貸)'와 '임차(賃借)'는 뜻이 반대되는 말이므로 주의해 써야 한다. '임대'는 '돈이나 그밖의 대가를 받고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일'을 뜻하는 말이다. 반면, '임차'는 '돈이나 그밖의 대가를 지불하고 남의 것을 빌리는 일'을 뜻한다. '임대 아파트'와 '임차 아파트', '농지 임대'와 '농지 임차' 등의 말이나, '이중 건물을 임대하다'와 '이중 건물을 임차하다' 등의 차이는 누가 빌려 주고 누가 빌리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두 낱말은 '하다, 되다'를 붙여 동사로도 아주 활발히 쓰인다.

다른 말 '세주다/세놓다'와 '세내다'도 많이 쓰인다. '일정한 세를 받기로 하고 집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준다'는 '세주다'이고 반대는 '세내다'이다. 이를 거꾸로 쓰는 사람들도 적잖게 있다. '세주다'와 '세내다', '임대하다'와 '임차하다'가 구별하기 어렵다면, 그냥 '빌려준다'와 '빌리다/빌려서다'로 바꿔 쓰면 참 쉽다.

전남대 명예교수·광주사극연출위원장

광주학생독립운동 89주년 특별 기획전

22일~11월30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관장 정희섭)은 학생독립운동 제89주년을 맞이해 '학생독립운동, 평화를 넘어 통일로'라는 주제로 '학생독립운동, 특별 사진기획전'을 개최한다.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념회관 현관 로비에서 진행될 이번 기획전은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과 역사적 계승을 위해 마련됐다.

학생독립운동 당시 참여했던 학교와 관련기관·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사진 전시물 등 총 214점을 촬영한 후 사진자료들을 선별해 기획된 전시다. 전시는 '학생독립운동기념탑(비)', '유명인사 방문 참배', '학생독립운동 주역들', '일제강점기 학교생활', '언론이 주목한 학생독립운동', '학생독립운동에서 통일로' 등 6개 소주제로 구성됐다.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를 중심으로 3·1운동, 11·3학생독립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과 최근 남북정

상들의 만남이 평화를 넘어 통일로 이뤄지기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성친화회와 소녀회 조직을 주도하며 학생독립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장재성·매성남매 가족사진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일부 자료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흠여져 있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수집해 사진자료 유물 전시목록을 만들어 의미를 더한다.

또 '백두산에 놀러가자' 셀프 포토존 설치, 플라로이드 기념사진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며 수집한 전시목록 사진자료 214점을 자동 디스플레이 영상으로 공개해 학생독립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김하정 학예연구사는 "잊혀져가는 학생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킬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특별기획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전시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윤주기자 storyboard@hanmail.net

'MOVE 2025 목포대 사랑'

CM송 공모전, 11월30일까지

국립목포대학교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MOVE 2025)에 따라 국내 최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비상하는 목포대의 가치와 위상을 CM송에 담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자 'MOVE 2025 목포대 사랑 CM송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주제는 목포대만의 특징점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호소력 짙고 창의적인 멜로디와 가사다.

이번 공모전은 작사·작곡에 소질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이나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싱어(Singer)가 부른 10초~30초 내외 길이의 CM송 음원파일 및 악보(가사 포함)를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 선정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초에 이뤄지며 최우수상(1작품)과 우수상(2작품)으로 총 3작품을 선정해 각각 상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시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대 홈페이지 일반공지 또는 홍보팀(061-450-65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주기자 storyboard@hanmail.net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쉐보레 자동차[금회]

카매니저 모집 채용문의 ☎ 062)675-2708

남·여 신입·경력 0명

이쿼닉스·스파크·트랙스·말리부·코루즈·라보·최고의 혜택!

◆최장 초저리 60개월 특별 할인, 무이자 할부

김태형 H. 010-9474-3616

이쿼닉스 트랙스 아베오 코루즈 말리부 캠퍼, 임팔라, 경차(스파크, 다마스, 라보)

깨끗한 자연환경을 살리는 파수꾼 유)오케이철거종합건축

오케이철거종합건축은 스테트/석면철거 전문업체입니다. 민중과 상생함을 기업이념으로 깨끗한 철거를 전진조각으로 합니다.

- ▲ 스테트 석면 철거 전문
- ▲ 공장 / 주택 / 상가 철거
- ▲ 집수리 및 미니크레인(압쇄기 보유)
- ▲ 인력 상용환경 / 모든 중고 고가매입

H. 010-2595-2116
☎ 062)952-2117, 956-2116
Fax. 062)942-2116

컨테이너 아주컨테이너

- 컨테이너 농가 주택 주문 제작
- 중고 사고 팔고
- 할부 가능

※ 직원구함

아주크레인 www.ajucon.co.kr
☎ 062)955-4100 휴. 010-6648-8990

햇병/스트레스 질환 경희한의원

불면증 · 우울증
햇병 · 공황장애

062) 365-1541
화정동 추신회관 맞은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07020-20-3972

태양광 발전소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매전하여 매월 연금식 소득 발생

- 발전소 부지 매수 · 매도
- 발전소 자금 대출 가능
- 건축물 가중치 1.5 적용

- ▶ 나주 문평 동원 : 1MG - 1구좌, 500KW - 2구좌
- ▶ 나주 세지 대신 : 2MG - 2구좌
- ▶ 순천 주암 : 100KW - 10구좌
- ▶ 나주 다시 송촌 : 100KW - 30구좌 분양 사업주 모집
- ▶ 고흥 도화 덕중 : 1MG - 2구좌
- ▶ 경북 의성 방하 : 750KW (개발행위 완료) 매각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이점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유니솔라 에너지 상담문의 H. 010-9340-5519 ☎ 062)672-5519

업소용 신상품 최저가 판매!

중고 최저가 판매 최고가 매입

절대 헐값에 팔지 마세요!!

대영생동 ☎ 062)352-0012
1층 매장 : 신안동사거리
2층 매장 : 동성동 610-8
3층 매장 : 화정동 178-3
H. 010-4010-4557